

배부르리라!

- 요한복음 6장 1-15절

문병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1. 본문의 배경과 구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2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서 모두 7개의 기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나에서의 기적(2:1-11), 고관 아들의 치유(4:46-50), 베테스다 못가 병자의 치유(5:1-15), 오병이어의 기적(6:1-15), 물 위를 걸음(6:16-21), 소경의 치유(9:1-12), 나사로를 소생시키(11장) 이러한 기적들 중의 하나가 6장에서 소개된 본문이다. 이 기적들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실체인 위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서에서의 기적은 표적 즉 싸인(sign)이 된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러한 군중들을 향하여 그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해설하여 주는 형식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5장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여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면서 창조주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그러한 권능을 아들이 자신도 가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본문(1-15절)에 연이어서, 물 위를 걸음(6:16-21)에 대한 표적을 제시하고 그리고 26-40절에서 예수께서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강화가 소개된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께서 출애굽의 재현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이해하여 광야의 만나를 연상하며 제2의 모세로 간주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 자신이 자신의 살(51절)을 드림으로써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을 표적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예수는 구원이란 인간이 인간생명의 실체인 “생명의 떡”을 취하여 인간실존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풍성하여 배부르게 되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2. 본문주석

본문에 소개된 오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은 예수 자신이 하늘의 실제 곧 “생명의 떡”(요 6:35)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을 미리 앞서 보여 주는 표적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허락하는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게 한다는 영적 메시지를 표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공관복음서와 비교하여 본문은 어떤 점이 다른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공관복음서에서의 보도(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열두 광주리 등의 숫자들이 일치하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묘사 등은 요한복음의 본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마가복음(막 6:34 이하)은 군중들이 하루 종일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먹인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서기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¹⁾.

본문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직접 요청함으로써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베풀 수 있는 그 초월을 경험하였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큰 생명을 베푸는 것을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자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땅에 속한 자로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분명히 당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음을 강조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그렇게 그 기적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누려야 할 생명이 그들 대부분의 생각처럼 그 떡에만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의 사건은 “생명의 떡”에 대한 표적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떡”인 이를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이를 초대하고 있다.

2.1. 사건의 전개 (1-4절)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신 기적을 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들 중의 일부는 유월절을 예수살렘에서 지키려고 외지에서 들어온 순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그들 중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 대하여 항상 상대적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와 종교적으로도 그랬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대망이 컸던 만큼 현실의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만만치 않았다. 이와 같은 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를 지어 몰려다녔다.

1) F. F. Bruce, 서문강 역, 『요한복음』(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6), 247.

2.2. 예수의 주도적 태도 (5-6절)

복음서 기자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등성이에 앉았을 때에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할 줄을 이미 **알고 그를 시험하려고**” 행동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본문이 교훈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성례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식사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먹을 것을 찾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혹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공개하여 내놓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행동을 주목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 또한 제한적이며 본문이 전하는 본질적 교훈과는 거리가 있다. 복음서기자는 이 기적사건에서 예수께서 주체가 되어 즉 어디까지나 **예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표적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께서 (~를) 보았다.”는 표현을 통하여 그의 메시아의 주도적 사역을 시작함을 증언한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였다. 그는 땅의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도록 전권을 부여받고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3. 예수의 축사 (7-11절)

소개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에 대한 상상력은 목회적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에 대한 복음서기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각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모두 열어 먹고 그 남은 음식을 모두 수거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기적의 의미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 기적을 도운 음식이나 그것을 제공한 어린아이의 행동을 강조하여 기적사건의 근저에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서기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해석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적을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서 늘 그렇게 하듯이 인간들의 태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언제나 초월적 행위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그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취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복음서기자는 오천여 명을 먹인 이 기적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려 드린 감사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한다.

2.4. 만족한 식사 (12-13절)

복음서기자는 먹고 남은 음식을 통하여 그들이 만족할 만큼 먹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배를 채웠다. 굶주린 배에 음식을 통하여 육체의 생명을 채웠다.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명령에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27절에서 이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설명과 관련이 있다²⁾. 그렇게 복음서기자는 계속하여 예수께서 인간이 육체의 생명, 즉 이 땅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고, 신적 생명을 주는 양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였음을 증언한다.

2.5. 군중들의 반응 (14-15절)

예수의 기적적 행위를 통하여 육체의 허기를 채운 군중들은 이윽고 술

2) 거라드 S. 슬로얀, 『요한복음』(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24.

령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아버지와 교통하는 행동을 보고나서 그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결론지었다.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왕을 삼아 자신들의 힘을 시위하려고 했다. 예수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감지하고 자리를 떠서 그들의 관심을 피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그러나 복음서기자가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더 이상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신학적 문제들

본문은 우선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적 행위를 통하여 군중들이 배불리 먹은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의미는 공관복음서에서처럼 예수께서 전권을 행사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서의 기사는 **그 기적을 하나의 표적(사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의 기적은 예수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전능자로서 인간실존의 필요를 채워 주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예수가 그 표적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월절**에 관한 언급은 본문에서 어떤 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드러진 예수의 살과 피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을 표적한다. 그리하여 그 생명을 회복한 인간은 창조주의 무한한 부요

함을 상속받고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더 풍성하게 참여하도록 교훈한다!

11절에서 예수께서 행한 **축사행위**를 “감사를 드리다”(헬, *εὐχαρίσταν*)라고 표현되었다. 이 표현은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사용되는 초대교회의 언어였다. 그와 같은 행위는 본래 유대교에서 식사 때에 드리던 감사의 기도에서 유래했으며 주님의 만찬 때에도 사용된다. 이것에서 유래하여 이 개념은 훗날 성례(Eucharistie)라는 의미를 다시 얻게 된다. 제4복음서기자는 공관복음서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덧붙이지 않은 점으로 볼 때에 복음서기자가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만찬의 주제를 피력하려고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본문에서 그 예수의 축사행위가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설교를 위한 묵상

이 세상의 아담적 삶은 곧 인간적 결핍의 삶이며 이것은 다양한 죽음의 증상들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갈릴리의 군중들처럼 언제나 땅의 현실에 매여 그것에 집착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의 거듭된 감사기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이 고갈된 땅에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인간은 이 현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마저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주의 무한에 참여하여 이 생명의 풍요함을 경험하게 하라는 메시지는 한낱 수사적 표현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문의 목회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질문해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군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가?

그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그 예수의 기적행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본문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앞서 강조하여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인간이 그 “생명의 떡”을 취하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생명의 떡”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다시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게 된다. 복음서기자는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태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술한다.

첫째, 예수는 군중들이 자기에게 물려오는 것을 보고 이 기적사건을 **주도적으로 준비한다.** 그 물려드는 군중들에서 예수는 그들의 허기진 배, 즉 그들의 허기진 삶의 절고를 직시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히 살아야 할 그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물려들고 있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그들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땅에 속한 백성으로 땅의 현실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는 굶주림과 허기진 배였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다. 예수는 그들을 바라만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셨다. 그렇게 예수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나의 생명의 궁핍함도 보시고 나의 허기진 배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궁핍함과 허기짐을 주도적으로 채워 주시리라. 그리고 나를 풍성함으로 초대하신다. 내가 그에게 갔더니, 그는 내가 입을 열

기도 전에 내 배의 굶주림을 보셨다. 내가 그의 소문만 듣고 찾아갔는데 내 필요를 모두 알아차리셨다. 내가 무엇에 굶주렸는지 꿰뚫고 계셨다. 그리고 그 공훈과 사랑으로 나를 보시고 다가오신다.

둘째, 예수께서는 축사행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신다.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자마자 영생하는 양식이 땅 아래로 쏟아진다. 이것은 초월과 내재의 만남이며 땅의 현실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 때에 그들은 낮추고 엎드려야 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비워야 했다. 하늘의 양식은 그들에게 과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하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은 자들은 내게 진정 무엇이 필요했는가를 알아야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보리떡과 물고기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었다. 그들은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희열이 땅의 떡을 통한 허기를 달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했다. 여기에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했다.

예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니 배불리 먹으라고 초대하신다. 그는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의 양식이니 믿고 먹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의 살과 피를 받아먹을 때에 주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이때에 땅에 속한 삶도 더불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하늘의 양식을 과연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통하여 정말 궁극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셋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체험한 군중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한 자들치고는 그 반응이 뜻밖이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비록 땅에 속하였더라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지 않았는가? 그들이 무지했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그러나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하늘의 세계를 목격한다 땅

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가? 초월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땅의 큰 것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을 쫓 빼닮은 것이다. 창조주의 초월적 권능을 행사한 그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는 그들은 믿음을 도 구화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의 관심은 달랐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땅에 속한 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려 주신 예수 자신인 “생명의 떡”이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배부르게 먹기를 바랐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관심을 피하여 그들을 떠나야만 했다.

나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부르게 먹으려 하는가? 하늘과 땅의 양식을 모두 만드신 창조주의 풍성함에 초대된 나는 그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본문은 그렇게 그것을 배부르게 먹도록 초대하고,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다.

:: 문병구 서울신학대학교(B.A.)를 졸업 한 후 독일 마부르크(Marburg) 대학교(Mag.theol.)을 거쳐 에일랑엔(Erlangen) 대학교에서 공부했다(Dr.theol.).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다.